



BASIC  
Guide Book

편입학 기초 가이드북

# CONTENTS

## CHAPTER 1 편입 이해

- 01 편입은 어떤 입시인가
- 02 수능과 편입영어는 무엇이 다른가
- 03 편입 준비를 시작하기 전 꼭 알아야 할 현실

## CHAPTER 2 기초 학습

- 01 편입영어에서 기초가 중요한 이유
- 02 편입영어의 기초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 03 기초어휘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 04 기초문법은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가
- 05 문장구조를 보는 힘이 왜 중요한가
- 06 기초 단계의 독해 연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07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Website address  
[www.studius-bridge.kr](http://www.studius-bridge.kr)



Email us  
[contact@studius.kr](mailto:contact@studius.kr)



Phone number  
T 070-4922-5656



instagram  
[@studi\\_uss](https://www.instagram.com/studi_uss)

# 편입 이해

## 1. 편입은 어떤 입시인가

편입을 처음 알아보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대개 비슷합니다.

“편입이 정확히 뭐지?”

“재수랑은 다른 건가?”

“수능을 다시 보는 게 아니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거지?”

이처럼 편입은 익숙한 입시처럼 보이면서도,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조가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입은 쉽게 말해, 대학에 처음 입학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쌓아둔 학업 이력을 바탕으로 대학의 중간 학년에 진입하는 입시**입니다.

즉,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수능이나 학생부 전형 등을 통해 1학년으로 입학하는 일반적인 신입학과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편입은 일정한 지원 자격을 갖춘 뒤, 각 대학이 요구하는 전형 요소를 준비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편입은 단순히 “영어 시험을 잘 보면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많은 대학에서 편입영어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지만, 그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편입은 지원 자격과 시험 준비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입시**라는 점입니다.

# 편입 이해

어떤 학생은 이미 대학 재학 이력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학생은 학점은행제나 다른 방식으로 자격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지만 학교를 옮기기 위해 편입을 선택하고, 어떤 학생은 진로를 다시 설계하기 위해 새로운 출발점으로 편입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편입은 생각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선택하는 입시입니다. 누군가는 더 나은 대학으로 이동하기 위해, 누군가는 전공을 바꾸기 위해, 또 누군가는 과거의 입시 결과를 다시 뒤집기 위해 편입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편입은 단순히 “다시 공부하는 시험”이 아니라, 자신의 학업 방향과 진로를 다시 설계하는 선택지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편입을 막연하게 특별한 사람들만 준비하는 입시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구조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편입 역시 결국은 하나의 입시입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내 위치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준비 순서를 잡아나가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시험입니다.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시험 자체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편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준비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편입 준비의 첫 출발점은 “어떻게 공부할까” 이전에 “편입이 어떤 입시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편입을 준비하려는지, 편입은 어떤 구조로 진행되는지, 무엇을 먼저 알고 시작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준비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 편입 이해

## 2. 수능영어와 편입영어는 무엇이 다른가

편입을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 중 상당수는 영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착각을 합니다.

“영어는 영어니까, 수능영어를 준비하던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 공부를 시작해 보면 대부분 여기서 큰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단어는 아는 것 같은데 해석이 잘 안 되고, 문제를 풀어도 왜 틀렸는지 모르겠고, 지문을 읽어도 흐름이 한 번에 잡히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편입영어의 특성**을 체감하게 됩니다.

수능영어와 편입영어는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영어 시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구하는 능력의 결이 꽤 다릅니다. 수능영어는 비교적 정해진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되는 시험입니다. 물론 수능도 쉽지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문제 유형 역시 어느 정도 익숙한 범위 안에서 반복됩니다. 반면 편입영어는 대학별 출제 성격이 훨씬 강하고, 문제의 밀도나 난도 역시 더 높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편입영어는 단순히 문장을 대충 읽고 감으로 답을 고르는 방식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어휘 난도가 높고, 문장 구조가 복잡하며, 한 문장 안에 들어 있는 정보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편입영어를 준비할 때는 “아는 단어가 몇 개 보이느냐”보다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끊어 읽고, 글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따라갈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 편입 이해

많은 학생들이 편입영어를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어를 꽤 외웠는데도 해석이 막히고, 문법을 어느 정도 공부했는데도 문제풀이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 이유는, 편입영어가 단순 암기형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에서는 **[어휘, 문법, 독해, 논리]**가 서로 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단어를 알아야 해석이 되고, 문장구조를 알아야 독해가 되고, 독해가 되어야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흐름을 파악해야 논리 문제까지 풀 수 있습니다. 즉, 편입영어는 한 영역만 잘한다고 되는 시험이 아니라 기초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점수가 올라가는 시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입영어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수능식 접근과 편입식 접근이 다르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능에서 영어를 어느 정도 했던 학생이라도 편입영어는 다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반대로 수능 영어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학생이라도 편입식 훈련을 제대로 밟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편입영어는 “원래 영어를 잘하던 사람만 유리한 시험”이 아니라, **편입에 맞는 방식으로 훈련한 사람이 유리한 시험**이라고 보는 편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편입영어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비교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나는 수능 때 몇 등급이었으니까 괜찮겠지” 혹은 “나는 영어를 못했으니까 시작해도 소용없겠지”처럼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편입영어가 무엇을 요구하는 시험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공부 방식도 달라지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도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 편입 이해

## 3. 편입 준비를 시작하기 전 꼭 알아야 할 현실

편입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짧은 기간 안에 성적을 올렸다고 하고, 누군가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글에서는 편입이 인생역전의 기회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후기에서는 중도에 포기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반된 이야기들 사이에서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과장된 기대도, 지나친 불안도 아닌 **현실적인 이해**입니다. 편입은 분명 단기간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나 아무 준비 없이 쉽게 주어지는 결과는 아닙니다. 편입은 준비한 만큼 드러나는 시험이고, 특히 영어 영역에서는 기초의 유무에 따라 출발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학생들이 초반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너무 빨리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편입 문제를 많이 보면 익숙해질 것 같고, 일단 어려운 문제를 접해야 실력이 빨리 오를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문제만 계속 풀면, 틀리는 경험만 반복될 뿐 왜 틀렸는지조차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부 시간이 쌓여도 실력은 제자리인 듯 느껴지고, 결국 “나는 편입영어가 안 맞는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 편입 이해

편입 준비는 생각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기초를 점검**하고, 그다음 **문장 해석의 기반**을 만들고, 이후 **독해와 논리로 확장**해 나가며, 마지막에 **실전 감각**을 다듬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무너지면 공부량에 비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수준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맞는 단계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 편입 영어는 분명히 정복 가능한 영역이 됩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현실은, 모든 대학을 같은 방식으로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편입은 대학별 전형 성격 차이가 존재하고, 준비 전략 역시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지나치게 넓게 잡기보다, 내 현재 수준과 목표 대학, 준비 기간을 함께 고려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하는 공부가 좋은 공부는 아닙니다. 편입에서는 방향이 틀린 노력보다, 맞는 순서로 쌓아가는 반복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무엇보다 편입은 단순히 시험을 치르는 과정만이 아니라, 꽤 긴 시간 동안 자신을 관리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점수가 당장 눈에 띄게 오르지 않는 시기도 있고, 남들과 비교하며 불안해지는 순간도 있으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날도 생깁니다. 그래서 편입은 단순한 지식 싸움이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싸움에 가깝습니다. 초반에 이 사실을 알고 시작하는 학생과 모르고 시작하는 학생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 편입 이해

## CHAPTER 1을 끝내면서..

편입은 많은 학생들에게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차분히 들여다보면, 편입 역시 분명한 구조를 가진 입시입니다. 단지 익숙한 수능 준비 방식과는 다르고, 영어 또한 같은 영어처럼 보여도 준비해야 하는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편입 준비의 시작은 무작정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편입이 어떤 입시인지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편입의 구조를 알고, 수능영어와 편입영어의 차이를 알고, 준비 과정에서 무엇이 현실적으로 필요한지를 아는 순간부터 공부의 방향은 훨씬 선명해집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재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결국 편입 준비는 남들이 어떻게 했는가보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기초 학습

## 1. 편입영어에서 기초가 중요한 이유

편입영어는 어휘, 문법, 독해, 논리가 각각 따로 작동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어를 알아야 문장을 읽을 수 있고, 문장 구조를 알아야 해석이 가능하며, 해석이 가능해야 독해로 넘어갈 수 있고, 독해가 되어야 논리 문제에서도 근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즉, 편입영어는 어느 한 부분만 따로 잘한다고 해결되는 시험이 아니라, 기초부터 차례대로 연결되어 올라가는 시험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초를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단어를 처음 외우고, 문법의 기본 구조를 다시 보고, 짧은 문장을 반복해서 해석하는 과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조롭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어려운 문제를 풀면 왠지 더 많이 공부한 기분이 들고, 더 빨리 실력이 오를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초가 약한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몸으로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장은 열심히 한 것 같아도 오래 버티기 어렵고, 오히려 잘못된 습관만 남기기 쉽습니다.

편입영어도 기초 어휘와 기초문장 이해가 흔들리면 독해와 문제풀이에서 계속 같은 이유로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조금 함보다 정확성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기초를 정확하게 다지는 것이 결국 더 빠른 길이 됩니다.

이런 생각이 강할수록, 지금 내게는 기초에 대한 재정리가 더 필요하겠죠?

# 기초 학습

## 2. 편입영어의 기초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많은 초보자들이 “기초를 다져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단어 암기를 떠올립니다. 물론 단어는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편입영어의 기초를 단어만으로 생각하면 곧바로 한계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편입영어의 기초는 훨씬 더 입체적이고, 크게 보면 세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기본 어휘를 빠르게 인식하는 힘

둘째, 문장을 이루는 핵심 문법과 구조를 이해하는 힘

셋째, 짧은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힘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야 비로소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단어를 많이 외웠다고 해도, 문장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면 실제 독해에서는 잘 읽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문법 개념을 공부했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 문장에 적용해서 구조를 볼 수 없다면 해석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결국 편입영어의 기초는 ‘무언가를 외운 상태’가 아니라, 영어 문장을 덜 낯설게 느끼고 실제로 읽어낼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어를 많이 안다고 독해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어떤 순서로 조합되는지 알고, 실제로 손으로 다뤄봐야 요리가 되듯, 편입영어의 기초도 단어와 문법을 실제 문장 속에서 연결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기초 학습

예를 들어 아래 문장을 보겠습니다

<예 문>

Many students think that memorizing more words will solve all their reading problems.

이 문장은 단어만 봐도 어느 정도 뜻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어 뜻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문장에서 핵심은 Many students think이고, 그 뒤의 that 이하는 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 students가 주어이고
- think가 동사이며
- that 이하가 think의 내용이라는 구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기초는 단어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들이 문장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 한 줄 정리

편입영어의 기초 = 어휘 + 문법/문장구조 + 정확한 해석

# 기초 학습

## 3. 기초어휘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기초어휘 공부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어려운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편입영어에서는 어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어휘 학습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초보자에게 더 먼저 필요한 것은, 무조건 많은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본 단어를 빠르게 떠올리고 문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읽어내는 힘입니다.

실제로 초보자들이 독해에서 많이 막히는 이유는 어려운 단어를 몰라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기본 단어가 문장 속에서 다른 뜻으로 해석될 때입니다. 내가 아는 단어의 해석이 아니다 보니, 문장이 어색하게 보이게 될 수도 있겠죠?

단어만 보면 아는 단어인데, 지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단어를 못 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문장 속에서 단어를 인식하는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단어들은 비교적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issue
- address
- subject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문장 안에서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ddress는 단순히 ‘주소’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 ‘다루다, 해결하려고 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 기초 학습

The government must address the problem quickly.

이 문장을 보면 "address"는 '주소'가 아니라 문제를 다루다라는 의미겠죠?

또 "issue"도 '이슈'라는 익숙한 말로 알고 있어도, 실제 문장에서는 '문제, 쟁점, 사안'처럼 읽혀야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This is a serious issue for many students.

이 문장처럼 여기서의 "issue"는 “이것은 많은 학생들에게 심각한 문제다”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즉, 단어 공부는 뜻 하나를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로 작동하는지까지 익히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초보자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에 압도되기보다, 기본 단어를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어려운 단어를 100개 외우는 것보다, 자주 나오는 기본 단어 30개를 실제 문장 속에서 정확히 읽는 쪽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부법 팁

기초어휘는 하루에 무리하게 많이 보기보다, 짧게 자주 반복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 단어 하나를 볼 때 뜻만 적어두고 끝내기보다, 짧은 예문을 함께 보면서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문을 통해 단어를 보면, 나중에 지문에서 만났을 때 훨씬 빨리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초 학습

## 4. 기초문법은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가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초보자들은 자주 불안해합니다. “문법을 어디까지 해야 하지?” “이 많은 내용을 다 외워야 하나?” “문법이 완벽하지 않으면 독해를 하면 안 되는 건가?” 같은 고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편입 초보자에게 필요한 문법은, 모든 문법을 빠짐없이 다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문장 해석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문법**입니다.

즉, 문법의 목표는 문제를 많이 맞히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시제, 수동태, 관계사, 준동사, 접속사, 비교구문**처럼 문장 구조를 바꾸는 핵심 요소를 우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실제 지문에서 자주 등장할 뿐 아니라, 문장의 흐름을 한 번에 어렵게 보이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관계사**가 들어간 문장을 보겠습니다.

<예 문>

The student who studied every day improved quickly.

이 문장을 처음 보면 길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사실 단순합니다.

The student improved quickly.

이것이 문장의 중심입니다.

who studied every day는 "student"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 기초 학습

즉, 이 문장은 “매일 공부했던 그 학생은 빠르게 향상되었다”는 뜻입니다. 관계사를 모르면 문장이 길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구조를 알고 나면 중심은 훨씬 간단하게 보입니다.

**수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문>

The student who studied every day improved quickly.

이 문장은 “그 보고서는 연구자에 의해 쓰였다”는 뜻입니다. 수동태를 읽지 못하면, 누가 행동을 했는지와 무엇이 그 행동을 받은 것인지 를 거꾸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편입영어에서는 이런 작은 구조 실수가 독해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법 개념 하나를 배웠다면 반드시 실제 문장에서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이고 “관계사는 앞의 명사를 꾸민다”는 설명을 아는 것과, 실제 문장에서 관계사를 보고 구조를 바로 읽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문법 지식이 해석 도구로 작동하는 상태까지 가야 합니다.

## ★공부법 팁

문법을 공부할 때는 “이 개념이 문장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문법책을 읽은 뒤에는 반드시 예문을 보면서, 이 구조가 왜 이렇게 해석되는 지 스스로 설명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기초 학습

## 5. 논리를 보는 힘이 왜 중요한가

기초어휘를 어느 정도 보고, 핵심 문법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해석이 막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단어도 아니고 문법 개념 부족도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논리를 보는 힘이 약한 것**입니다.

논리를 본다는 것은 문장 안에서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부가 설명인지를 구분하는 힘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같은 중심축을 먼저 잡고, 그 뒤에 붙는 수식어를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긴 문장도 덜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초보자들이 긴 문장에서 자주 무너지는 이유는,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핵심과 꾸며주는 부분이 한 덩어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예 문>

The book on the desk, along with several notebooks, belongs to my brother.

이 문장은 길어 보이지만 핵심 구조는 단순합니다.

The book belongs to my brother.

중간의 "on the desk"는 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along with several notebooks"는 여러 공책과 함께 있다는 부가 설명입니다.

즉, 이 문장의 중심 동사는 "belongs"가 되겠죠?

# 기초 학습

초보자는 이런 문장에서 중간 표현들에 시선이 분산되어 주어와 동사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논리를 이해할 수 있으면 긴 문장도 핵심부터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편입영어의 기초 단계에서는 단어를 많이 아는 것만큼이나, 문장을 나누어 보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문을 보겠습니다

<예 문>

The decision made by the committee surprised many people.

처음 보면 "decision" 뒤에 "made"가 붙어서 어색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The decision surprised many people.

입니다.

그리고 made by the committee는 "decision"을 꾸며주는 표현입니다.

즉, “위원회에 의해 내려진 결정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문장구조를 보는 힘이 생기면, 문장이 길어져도 덜 두렵게 느껴지고 해석의 정확도도 높아집니다. 결국 독해 실력의 상당 부분은 **단어량보다도 문장을 어떻게 나누어 읽느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초 학습

## 6. 기초독해 연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초 단계에서 독해 연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빨리 읽어야 한다”는 생각부터 하지만, 기초 단계에서는 빠르게 읽는 것보다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속도를 의식하면, 구조를 보지 않은 채 단어만 이어 붙이는 해석 습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문장을 보겠습니다.

<예 문>

Many students believe that success comes from consistent effort.

이 문장을 단어 순서대로 억지로 옮기면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훨씬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습니다.

Many students believe

"많은 학생들은 믿는다"

that success comes from consistent effort

"성공은 꾸준한 노력에서 온다고"

즉, 전체 뜻은 “많은 학생들은 성공이 꾸준한 노력에서 온다고 믿는다”가 됩니다.

# 기초 학습

중요한 것은 단어를 하나씩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 어떤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기초 단계의 해석 연습은 바로 이 감각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짧은 문장을 보고 주어와 동사를 찾고, 핵심 구조를 확인하고, 그 뜻을 자연스럽게 옮겨보는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예문을 보겠습니다.

<예 문>

The idea that failure is always negative is not true.

이 문장의 핵심은 **The idea is not true.** 입니다.

그리고 **that failure is always negative**는 "idea"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즉, 이 문장은 “실패가 항상 부정적이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초보자가 이런 문장을 읽을 때 자주 하는 실수는, 단어를 다 알면서도 구조를 못 봐서 이해가 늦어지는 것 때문이기에 기초 단계에서는 하루에 많은 문장을 보기보다, 적은 수의 문장을 정확하게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해석한 뒤에는

- ✓ 주어는 무엇인지
- ✓ 동사는 무엇인지
- ✓ 꾸며주는 부분은 어디인지
- ✓ 해석이 막힌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를 짚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입니다.

# 기초 학습

## 7.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기초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실력이 부족한 것 자체가 아니라, 기초가 부족한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조금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태도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이 정도는 빨리 끝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금함은 오히려 기초를 더 흔들리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①실수는 단어만 계속 외우고 문장을 거의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단어장 회독 수는 많아지는데, 정작 실제 문장을 만나면 여전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어를 외운 것이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단어를 실제 문장과 연결해보는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실수는 ②문법 강의만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강의를 들을 때는 이해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혼자 문장을 분석하려고 하면 손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문법을 ‘이론’으로만 받아들이고, ‘해석 도구’로 바꾸는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③어려운 문제를 빨리 풀어야 실력이 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실전 문제풀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초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늘리면, 틀리는 이유가 계속 비슷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설을 보면 이해되는 것 같지만, 다음 문제에서도 같은 부분에서 다시 막히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 기초 학습

## 공부법 팁

초반에는 기초 비중을 높게 두고 시작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이후 짧은 문장 해석이 조금씩 편해지면,  
기초를 완전히 끝지 말고 독해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기초는 어느 날 갑자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올라갈수록 덜 의식하게 되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CHAPTER2 를 끝내면서..

편입영어의 기초는 단순한 준비운동이 아닙니다.

독해와 논리, 실전 대비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바탕입니다.

또한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것만으로 기초가 완성되지 않고, 문법을 안다고 해서 곧바로 독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는 어휘, 문법, 논리, 독해가 서로 연결되면서 비로소 제대로 갖춰집니다.

그래서 초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지금 내 수준에서 어떤 기초가 부족한지를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쌓아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처음에는 속도가 느린 것처럼 보여도, 이 단계를 제대로 지나간 학생은 뒤로 갈수록 훨씬 안정적으로 성장합니다.

이제 기초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의 수준을 진단하고 기초를 바탕으로 실제 문장을 읽고, 문단을 이해하고,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훈련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